

예비 신부로 남지 말아라

작성일 : 2011. 12. 1(목) 새벽 3:45

작성자 : 양주희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저와 함께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12월이 되었어요. 한 해가 1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때 마음과 뜻과 목숨 다해 주님과 함께 마무리를 잘해서 다가올 2012년을 주님과 함께 잘 뛰고 싶습니다. 주님 저와 함께해 주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섭리를 뛰게 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심정을 받고 싶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뜨겁게 만나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선생님의 심정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선생님과 동일한 마음으로 섭리를 뛰게 하여 주십시오. 진정 주님의 애인, 선생님의 애인 되어 뛰고 싶습니다. 저와 함께해 주세요.” 기도하였습니다.)

\*예수님 말씀\*

사랑아. 너의 신랑 주 예수다.  
날마다 나와 함께하고자 기도하는 너에게  
내가 함께하노라.  
이 시간 너는 더욱 마음 다해 기도하여라.  
내가 이 섭리에 진정 바라고 원하는 것을 말하고자 한다.  
그러니 너는 다른 어떤 때보다  
더욱 마음 다해 기도하여  
내 심정의 성산에 올라오길 원하노라.

(다시 기도를 하였습니다. 기도하는데 며칠 전 가정국 여전도회 모임 기도 중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주님께서 “내 사랑이 되어 다오.” 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주님, 저희는 이미 주님의 사랑이잖아요?” 했습니다. 주님께서 “말만 하는 자가 아닌 내가 원하는 것을 해 주는 자가 내 사랑이다. 내가 바라는 것을 이루어 주는 자가 내 애인이야.” 하셨습니다. “이것이 주님 하실 말씀입니까?” 여쭙니 주님께서 “맞다. 네가 내 심정에 맞게 말했다.” 하시며 해 주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사랑하여

내 몸으로 삼고 내 애인으로 삼은 자들아.  
이제 시대 추수의 때가 되어 한 명 한 명 거둬들이고자  
날마다 너희 곁에 서성이는 사랑의 주 예수다.

농부가 씨를 뿌릴 때는  
뿌리는 그 모든 씨앗이 결실을 맺어  
풍성한 가을을 기대하듯  
내 모든 사랑을 이 섭리에 부어 주었다.  
또한 2000년 역사를 이어 왔다.  
한 번 씨앗을 뿌리면  
농부는 그 씨앗이 결실을 맺기까지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듯 내 그리 뛰어 왔다.

때에 따라 말씀을 주고  
때에 따라 은혜를 부어 주고  
때에 따라 내가 함께함을 나타내며  
내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고  
신약 2000년을 이어 왔고  
이 섭리를 이끌어 왔음을 알아야 한다.

이젠 너희가 어떻게 하느냐 그 책임분담만 남았다.  
너희가 나를 찾고 부르며  
나를 잡아야 할 때임을 알아야 한다.  
마지막 날엔 여자가 남자를 안으리라 한  
그 말이 이루어지는 그때임을 알아야 한다.

나는 지금도 너희와 함께한다.  
한시도 너희와 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너희가 얼마나 나를 잡았는지  
얼마나 나와 함께했는지  
이제는 그것을 생각하며 살아야 한다.  
차원을 달리하며 떠나는 나 예수이다.  
그러나 내 곁을 따라오는 자는  
내가 함께함을 느낀다 하였다.  
애인 뒤를 졸졸 따라다니는 자는  
애인이 그 어디를 가든  
항상 함께하고 있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나는 지금 나와 함께하는 자를 찾고 있다.  
내 곁을 떠나지 않는 그자를 찾고 있다.  
내가 너희와 늘 함께하고 싶어 하듯  
이젠 나도 그런 마음을 가진 자와 함께하고 싶다.

이것은 내가 너희를 멀리하려 하는 것이 아니다.  
천국으로 휴거될 그 날이 멀지 않았기에  
그러함을 알아야 한다.  
천국이 어떤 세계이나.  
천국을 막연히 생각해서는 안 된다.  
나 예수를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사랑하며 가는  
곳이다.  
그 수준이 되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곳이기  
에 날마다 나는 너희에게 사랑의 차원을 높여라  
말을 하는 것이다.

어린이같이 나를 사랑하던 자가  
한 여자가 되어 한 남자를 사랑하듯  
그런 사랑을 해야 천국에 갈 수 있다.  
어린이는 그저 바라기만 하는 사랑이다.  
하염없이 내가 피부어 주어야만 하는 사랑이다.  
그러나 한 여자로 성장된 자와 사랑을 나누게 되면  
내가 하염없이 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받을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해 줄 수 있는 사랑인 것이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너희에게 내 사랑을 부어 주며  
너희를 사랑의 온전한 대상이 될 수 있게  
이끌어 주고 키워 왔다.  
이 섭리는 30년 동안 너희를 키워 왔고  
지금 이 세상 어느 곳에서도 받을 수 없는  
천국 성령을 부어 주어  
너희를 이끌어 주었고 키워 왔다.

예비 신부란 말을 들었지?  
나와 정식 결혼을 하기까진  
모두가 나의 예비 신부임을 알아야 한다.  
그런데 지금  
내가 이미 마음 주고 정을 준 자들은  
예비 신부라 할지라도  
사랑하는 남녀가 마치 첫날밤을 보낸 자와 같기에  
내가 데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내가 모든 자들을 사랑하지만  
선생처럼 청춘을 바쳐 나를 사랑하고  
내 몸 되어 뛰어 준 자는  
내가 마음 주고 정을 준 자와 같기에  
내가 그를 버릴 수가 없는 것이다.

내 애인이 되어라.  
내 사랑이 되어라.

내가 진정 바라고 원하는  
나의 진정한 애인이 되어라.  
그래야 내가 너희를 끝까지 책임지고 갈 수 있다.  
한 남자가 한 여자와 뜨거운 사랑을 나눴는데  
그 여자를 어찌 버릴 수 있겠느냐.  
한 몸이 되었는데 버릴 수 없는 것이다.

이처럼 지금 너희가 내 몸이 되어야 한다.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는  
내 몸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내가 너희를 영원한 사랑의 세계  
천국으로 이끌 수 있는 것이다.

이 세상에 나를 믿는 자들이  
나를 “주여, 주여” 부른다고  
다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였다.  
이처럼 이 섭리에 있어도  
나를 사랑한다 고백하지만  
말로 사랑을 끝내는 자는  
영원히 예비 신부로 남을 수밖에 없다.  
행하는 자, 나의 심정을 가지고 내 뜻을 이루어주는  
자가  
나의 영원한 신부되어 내 나라 갈 수 있다.

그러니 지금 마음 다해 뛰어 주길 원한다.  
너희의 행함으로  
너희 영이 변화된다는  
휴거의 근본 말씀을 듣지 않았느냐.  
너희의 행함으로  
너희 영이 내 신부 되어  
내 나라 갈 수 있다 배웠지 않느냐.  
이 섭리에 예비 신부들은 허다한데  
진작 내 몸 되어 나와 떨어질 수 없는 선생처럼  
그런 사랑으로 내 앞에 나아오는 자들이 많이 없다.  
추수하여 거둬들일 때가 하루하루 다가오기에  
내 마음이 애가 타는구나.

추수하여 거두는 때가 되기 전에  
어서 너희를 익은 곡식으로 만들어라.  
누런 황금 들판을 보며 흐뭇해하는 농부의 심정처럼  
내 너희를 보고 웃을 수 있게  
너희를 온전한 나의 신부로 만들어라.

그날이 되면 익은 곡식만 거둬들이듯

진정 나의 영원한 신부가 된 자들만 데려감을 잊지  
말고

지금 힘들어도 조금 더 수고하여라.

지금은 조금만 수고해도 효과가 바로 나는 때이다.

그러기에 내 마지막 심정 태워 말하듯

이리 말하는 것임을 알아라.

선생이 표상이다.

어떤 환경에서도

오직 나 예수만을 위해 사는 선생처럼

너희도 선생의 정신으로

나 예수와 영원히 함께하는 자가 되길 원한다.

사랑하기에 너희 모두를 데려가고자 하는

나의 애타는 심정을 꼭 깨닫길 원한다.

너희와 영원히 함께할 사랑의 주 예수다.

진정 사랑한다.

내 몸 되어 사는 너희를 결단코 잊지 않을 것이다.

사랑해…….